

사회

시도 때도 없는 선거홍보 ‘짜증’

무차별 문자메시지·지지 전화 ...유권자들 “기분 나빠”
 유세차량 스피커 로고송·연설 소음 “업무도 못할 판”
 출퇴근길 무질서한 주정차 교통흐름 방해 “미칠 지경”

“(선거정보) 행운의 ×번. ○○○ 구의원 후보입니다.”
 회사원 이모(32·동구 지산동)씨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이내 전화기를 담아 버렸다. 이씨가 하루 평균 받는 문자메시지는 3~4건. 메시지 수신 신호가 뜰 때마다 친구 소식이나 업무상 연락인 것 같아 얼른 들여다보지만 번번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풀리고 만다.
 이씨는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도 짜증났지만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더 궁금해 화가 났다. 이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후보자들의 무차별적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에게 고통을

자기 보다는 짜증만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오후 3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모 이동통신 대리점 앞 길. 대학생·회사원·주부 등이 몰려 발 디딜 틈 없는 거리에서 연두색·주황색·노란색 조끼에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 20여 명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구의원, 교육감후보의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다.
 양손에 우산과 손가방을 든 유권자에게는 명함을 손가방에 살며시 집어 넣었다.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5m 가량을 뒤쫓아가며 홍보물을 억지로 건넸다. 땅 바닥에는 유권자들이 밟아 버린 가로 9cm·세로 5cm 크기의 명함이 밟고였다.
 같은 날 오후 6시50분께 동구 금남로 모 은행 지점 앞. 대형 스피커를 장

착한 선거 유세차량(1.5t)에서는 대중가요를 개사한 각 후보의 로고송과 연설·대답이 섞여 이어져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유세차량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할 결과 90dB. 나이트클럽(100dB 이상)의 소음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유세차량에서 30m 떨어진 곳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 김모(27)씨는 “후보자 간 경쟁하듯 음악의 볼륨을 높인데, 시끄러워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다.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려는 마음을 알겠지만 유권자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곤란하다”라고 토로했다.
 보험회사 직원 이모(35·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시도 때도 없이 선

거운동 홍보전화가 걸려오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출퇴근 시간에는 시가지 교차로마다 선거운동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하는 바람에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 같이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이를 질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글쓴이 ‘앙골’이라고 밝힌 게시자서 소음을 측정할 결과 90dB. 나이트클럽(100dB 이상)의 소음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유세차량에서 30m 떨어진 곳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 김모(27)씨는 “후보자 간 경쟁하듯 음악의 볼륨을 높인데, 시끄러워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다.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려는 마음을 알겠지만 유권자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곤란하다”라고 토로했다.
 보험회사 직원 이모(35·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시도 때도 없이 선

“불륜 알고있다” 협박에 공무원들 줄줄이 송금

전남 등 15명이 5000만원 ... 2명 무안서 검거

“나는 너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
 전남지역 모 지자체 과장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한 남성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전화였다.
 A씨는 “당신의 불륜사실을 알고 있고, 사진도 찍어 뒀다”는 상대방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의 입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또 이 남성은 자신의 머리 스타일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상대방이 불러준 계좌번호로 현금 3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륜을 저지른 적은 없었는데,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돈을 부쳤다”고 진술했다.
 김해경찰은 24일 전국의 고위공무원과 학교장, 농·수·축협 조합장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김모(55)씨를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황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통해

전국의 공무원 15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역 신문과 인터넷 기사 검색을 통해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사정바람을 범행에 이용하려는 듯, 대상자의 신세 특징까지 알아낸 뒤 협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또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 교장과 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미수에 그친 300여명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공무원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은신처로 이용한 광주에 한 주택에서 사과 박스 2개 분량의 신문과 30여권의 전화번호부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피해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씨 등은 광주에 은신처를 두고 ‘공갈 행각’을 저지르다 지난 19일 무안군 한 도로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강진 모 신문사 압수수색

강진경찰은 24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진지역 모 신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신문사가 특정 후보에게 금품을 받고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신문사 측은 경찰에서 “객관적인 사실대로 기사를 작성했을 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별정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 처벌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두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두 법을 어겼을 때 내부 징계는 할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조항이 불명확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했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국선언 지지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곡공무원노조 소속 별정직 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지방공무원법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말 기준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중앙정부 4천100여명, 지자체 7천1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신문사 여론조사 불만 사장·편집국장 폭행

지나 23일 밤 9시 40분께 부여읍 구아리 옛날통닭집 앞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청년 4명이 길가던 지역신문사 대표와 편집국장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달아났다.
 신문사 대표는 “최근 신문에 부여군수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나서 특정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자들의 소행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천안함 생존자 가운데 1명인 영광출신 박연수(27) 대위가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연합뉴스

천안함 생존 박연수 대위 광주서 ‘지각 결혼식’

최원일 함장 주례 ... 생존 장병 20여명 참석
 천안함 생존자인 박연수(27) 대위가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뒤늦은’ 결혼식을 올렸다.
 박 대위는 이날 천안함 함장 최원일의 힘찬 출발을 지켜봤다.
 영광 출신인 박 대위는 광주가 고향인 한씨와 5년 연애 끝에 지난 달 10일 천안함 입항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결혼을 미뤄야 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최 중령은 주례사에서 순직한 46인의 천안함 용사들을 떠올리며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한 전우들을 대신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해 하객들을 숙연하게 했다.
 최 중령은 또 결혼식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숨진 고희 출신 고(故) 강 준상사의 결혼식에도 주례를 서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상위권대학 기침없이 합격시킨다

개강 ▶ 6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학원 설립자	편입학원 부설 대학특수강사	편입학원 사수생
편입영어	기초이론반	대학편입 전문 대학특수강사	대학편입 전문 대학특수강사	편입학원 사수생
편입수학	미적분학	대학편입 전문 대학특수강사	대학편입 전문 대학특수강사	편입학원 사수생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2-222-8088, 227-8088